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호영** · 박원석***

A Study on the Location Fac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Korea*

Lee, Ho Yeong** · Park, Won Seok***

요약 :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조업에 적합한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여 AHP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집단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입지유형별로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문가집단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각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문가집단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는 투자동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쟁우위요인과 경영전략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투자만족도와 입지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투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에서는 노동의 유연성 부족과 우수인력의 확보문제를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로, 입지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원천에 관한 조사에서 행정당국보다는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철수한 경험이 있는 선행의 투자기업으로부터 입지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의사결정계층으로는 최고경영자로 확인되어 입지결정과 같은 전략적 정책결정들은 실무책임자보다는 최고경영층과의 관계 마케팅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입지요인, 입지유형, 업종, 기업규모, 기업특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 AHP분석기법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location decision factor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managing the manufacturing business in the nation's southeastern economic zone, and in expert group by using AHP analytical technique based on examining the location theory and the prior research of real estate for industry. Also, it analyzed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riority for location factors by corporate scale, by business category, and by location type targeting only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nd offered references necessary for location decision-making. In addition, to elicit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related to location decision factor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the implications were elicited by analyzing the results recognized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nd expert group on information elements regarding investment satisfaction, business bottlenecks, and location decision process. The considerable gap was indicated in importance and priority of location decision factors considered between the n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nd real-estate expert group for industry. As a result of analyzing by reflecting the corporate characteristic variable in location assessment model unlike before, the importance of the competitive advantage factor and the business strategic factor was indicated to be very high.

Key Words : Location factors, Location type, Business category, Corporate characteristics,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경제체제에서는 금융자본의 국제이동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무역장벽의 회피,

신시장의 개척, 기존시장의 보호, 현지국의 투자인센티브, 원자재 및 노동력확보, 경영권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동기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입지유형과 투자지원제

* 이 논문은 이호영의 박사학위논문(토대로 요약, 제작성한 것임).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Ph.D. in Real Estate,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for6066@naver.com)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wspark@daegu.ac.kr)

도를 마련하여 경쟁적으로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업에 대한 입지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특정지역의 도시발전과 투자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기업과 달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동기가 다양하고 기업의 특성이나 투자대상지역의 입지환경들도 매우 상이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최적입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투자기업의 고유특성과 일반기업의 입지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사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책적 관점과 경제적 효과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입지요인과의 연계성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투자기업의 특성이나 입지정보에 정통하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할 경우 행정당국에서 올바른 입지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의 획득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상기의 여러 제약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입지특성은 물론이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유특성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남경제권역에 속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에 적합한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여 AHP 분석기법을

통해 평가집단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입지유형별로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의 정보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고, 둘째로, 종래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입지변수 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고유의 특성변수들을 입지결정모형에 반영하여 기업특성변수들이 입지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셋째로, 투자유치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각종인센티브의 구성요인들이 입지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넷째로, 기업규모, 업종, 입지유형별로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입지관련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투자만족도와 경영에로사항을 조사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영향계층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행정당국과 투자유치기관에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진행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입지요인 추출

1) 선행연구 검토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각각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표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선행연구 검토	입지요인 추출	연구모형 구축 및 결과분석
-산업입지이론 고찰 -일반기업의 입지특성 고찰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고유특성 파악 -해외 선행연구사례 검토 -국내 선행연구사례 검토	-산업입지이론으로부터 추출 -기업 고유특성으로부터 추출 -해외 및 국내 선행연구사례 추출 (일반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중요도 분석기법 검토 -연구모형의 설정 -AHP분석기법의 적용 -설문결과에 의한 기술통계분석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 -연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같다.

첫째로, 일반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Townroe(1971)는 영국 내 이전과 분공장 건설경험이 있는 59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선정요인, 부지선정요인, 최종의사결정요인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는데 지역선정요인에서는 모기업과의 연계성, 부지선정요인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그리고 최종결정요인에서는 입지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fford(197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체 입지결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14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단위에서는 시장접근성과 운송시설, 지역단위에서는 개인적인 연고와 커뮤니티의 쾌적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종전에 크게 고려하지 못한 본사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954년부터 1974년까지의 미국 제조기업체 22개사의 입지결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장접근성, 원자재공급, 일반적인 노동력, 노동숙련도, 임금, 노동법규 및 노동단체, 관리가용성, 경쟁업체의 입지, 세제, 재무적 요소, 보험요율, 정치적 기류, 수송시설, 용수, 전기, 공장가반시설, 사업서비스, 지역사회규모, 지방정부태도, 지역생활여건, 생활비용, 지역지구제, 부지활용가능성, 기후, 지형, 토양, 건설비용 등 29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려한 입지요인으로는 시장접근성과 수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Badri(2007)의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205개의 입지요인 중에서 부동산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거쳐 수송, 노동, 원자재, 시장, 산업용지, 산업인프라, 정부태도, 세금구조, 기후, 커뮤니티 등 10개의 입지변수를 추출한 후 기업체 2,12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입지결정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자동차업종의 후보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서의호·변대호(1998)의 연구에서는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운송비, 지역성, 부지, 노동력, 사회간접자본 등의 상위 입지요인으로 계층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복수의 후보입지 3개소에 대한 요인가중치 결과를 토대로 민감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Stafford(1985)는 미국 16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국가, 광역, 지역, 장소로 구분하여 공간적 중요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은 국가에서 장소로 공간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지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경쟁력의 원천에 관한 Porter(1998)의 연구에서는 입지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요소조건(천연자원, 인적자원, 금융자원, 물적 하부구조, 관리 하부구조, 정보 하부구조,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투입비용, 요소의 질, 요소의 전문화), 기업전략과 경영여건(지역사회여건, 경쟁수준), 산업연관성(유능한 공급자의 존재유무, 클러스터 존재유무), 수요조건(지역의 고객수준, 고객의 요구수준, 특화된 회귀수요) 등을 제시하였다.

Armstrong and Taylor(2000)의 연구에서는 공간규모별로 해외투자결정요인, 지역블록결정요인, 국가선정요인, 지역선정요인 순으로 입지결정단계가 진행되는데 각 공간단위별로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은 상이하다고 해석하였다. Cheng and Kwan(1999)은 중국 내 지역단위 연구에서 지역시장규모, 노동비용, 산업인프라, 경제특구정책, 교육수준 등을 중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상으로 분석한 Ali and Guo(2005)의 연구에서는 국가단위의 입지결정요인으로 시장규모와 시장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센티브정책, 기업의 글로벌정책, 노동비용, 투자수익률, 수출전진기지, 정치적 안정성, 중국지역 연계성, 산업인프라, 환율, 유치국의 선진기술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Na and Lightfoot(2006)는 시장규모와 수요, 집적경제 및 산업인프라, 노동력, 임금수준,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지역단위의 입지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Lall(1997)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환경요인(시장, 천연자원, 경쟁력), 투자유치국의 정책요인(거시정책, 기업정책, 무역 및 산업정책, FDI정책), 다국적기업의 전략요인(입지전략, 구매전략, 통합이전전략)으로 세분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Dunning(1977)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국제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기업특유의 우위요소(Ownership Specific Advantages), 내부화 우위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s), 그리고 입지상의 우위요소(Locational Advantages)로 구분하고 절충적 관점에서 해외투자의 우위요소를 제시하였다. Perlmutter(1998)는 글로벌기업의 전략적 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본국지향기업, 현지지향기업, 지역지향기업, 세계지향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직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김태은·구교준(2007)은 정책변수(정부규제, 세율, 무역자유도, 지적재산권, 투자승인 등 투자인센티브), 경제변수(소득수준, 경제성장, 시장규모), 정치사회변수(민주주의, 법적 안정성, 부패, 노동비용과 우수인력, 정보기술 인프라)를 투자결정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조택희(2008)는 국내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제조업

별 광고집약도, 연구집약도, 영업이익증가율, 급여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출액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별 광고집약도,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이 높을수록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투자유입이 높은 반면에 임금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투자유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양한 가중치(Period weights, Cross-section weights, Cross-section SUR)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연구들은 후보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결정요인보다는 투자유입과 관련한 정책적 변수 및 경제적 관점에 치중하여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입지요인 추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은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차별적인 부분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표 2. 입지요인 추출(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입지요인	평가요인	연구학자
생산요소	부동산구득용이성	차미숙(2004), Armstrong and Taylor(2000)
	노동비용	Stafford(1974), Wei(2000), Ali and Guo(2005)
	노동력	Friedman et al.(1996), Na and Lightfoot(2006)
	자금조달용이성	임영대(1987), Smith(1981)
산업인프라	사회기반시설	Stafford(1974), Coughlin and Arromdee(1991), Friedman et al.(1996)
	공장기반시설	임영대(1998), Stafford(1974), Ali and Guo(2005)
	연구기반시설	권오혁(1999), 박종화·황우익(2002), Sun(2002)
	기술 및 사무지원시설	Townroe(1971), Stafford(1974)
시장	시장규모	Tsai(1994), Cheng and Kwan(1999), Sun(2002)
	경쟁관계	Porter(1998), Chung(2001), Sun(2002)
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	Coughlin and Arromdee(1991), Wei(2000)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Brewer and Young(1998)
	재정지원혜택	Friedman et al.(1996), Armstrong and Taylor(2000)
	인허가 서비스	이상호 등(1987), Coughlin and Arromdee(1991), Chung(2001)
산업연계성	투자유치태도	Coughlin and Arromdee(1991), Chung(2001)
	집적경제효과	서의호·변대호(1998), Sun(2002), Na and Lightfoot(2006)
	원료 및 부품접근성	Townroe(1971), Stafford(1974), Yang et al.(2003)
기업특성	모기업지역연계성	Brooke and Buckley(1988), Hayter(1998)
	경쟁우위	Buckley and Casson(1976), Dunning(1977)
	경영전략요인	Porter(1998), Armstrong and Taylor(2000)
	개인적요인	Katona and Morgan(1952), Stafford(1974)

는 연구모형에 들어갈 독립변수로서 입지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산업입지이론으로부터 추출한 입지변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으로부터 추출한 입지변수, 해외 및 국내의 선행사례연구에서 도출한 입지변수를 토대로 하여 연구채택 빈도순으로 종합·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입지이론으로부터 추출한 15개의 입지변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으로부터 추출한 2개의 입지변수, 해외 및 국내의 선행사례연구에서 도출한 23개의 입지변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모형에 사용할 독립변수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변수의 선정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산업용부동산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집단토론과정을 거친 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개의 입지요인을 추출하여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로 확정하였다.

3. 분석모형 구축

1) AHP 분석기법의 개요 및 입지요인 계층구조 설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조업 입지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결정요인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AHP 기법은 개인이나 그룹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도를 알고자 할 때 객관적인 수리모형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AHP는 1970년대 초반 Thomas Saaty가 제안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의 하나로, 의사결정 문제가 다수의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정하는 의사결정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계층의 구성은 최종목표, 상위 입지요인, 하위 평가요인으로 계층을 구성하였다.¹⁾ 이에 따라 상위 입지요인으로는 생산요소요인, 산업인프라요인, 시장요인, 투자인센티브요인, 산업연계성요인, 기업특성요인 등 총 6개의 상위 입지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상위 입지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평가요인으로는 부동산구독용이성, 노동비용, 노동력, 자금조달가능성, 사회기반시설, 공장기반시설, 연구기반시설, 기술

표 3. 입지결정요인 계층구조 (평가기준)

상위 입지요인	하위 평가요인	평가 고려사항
생산요소	부동산구독용이성 노동비용 노동력 자금조달용이성	지가, 임대료 수준, 확보용이성 임금수준 노동의 양과 질, 노동생산성, 노동단체태도 건설비용 등 투자금액수준, 확보용이성
산업인프라	사회기반시설 공장기반시설 연구기반시설 기술·사무지원시설	도로·공항·항만·통신망·교통의 편리성 전력·용수·도시가스·폐수처리 정부·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기술 및 사무지원시설 서비스
시장	시장규모 경쟁관계	시장의 규모, 신시장의 개척, 시장성장성 경쟁상황, 시장접근성
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 임대료·분양가감면 재정지원혜택 인허가 서비스 투자유치태도	조세감면, 세액공제, 수출관세감면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정부 또는 지자체 투자자금 재정지원 및 보조 인허가간소화, 유치장려, 정부 및 지자체태도 유치조직 및 고충처리 수준
산업연계성	산업집적경제 원료부품접근성 모기업지역연계성	유사업종집적, 지역클러스터, 전후방연계 부품의 지리적 근접성 지역산업과 모기업의 산업연계성
기업특성	경쟁우위 경영전략 개인적 요인	브랜드, 규모의 경제, 독점적 영향력 시장위험분산, 무역장벽회피, 현지의 요구 개인적 동기, 선호도

및 사무지원시설, 시장규모, 경쟁관계, 조세감면,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재정지원혜택, 인허가 서비스, 투자유치태도, 집적경제효과, 원료부품접근성, 모기업지역연계성, 경쟁우위, 경영전략, 개인적 요인 등 총 2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2) AHP 분석기법의 적용

AHP 기법은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각 요소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위계층의 요소 하에서 각 하위요소가

표 4. 쌍대비교행렬 및 가중치 종합화 과정

1단계		상위 평가기준에 대한 쌍대비교로 판단자료를 수집하고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 가중치 산출하여 상위 입지요인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도출						
상위 입지요인	생산 요소	산업 인프라	시장 요인	투자 인센티브	산업 연계성	기업 특성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생산요소	1.000	1.069	0.961	0.977	0.916	1.109	36.311	16.68%
산업인프라	0.935	1.000	0.876	1.000	0.984	1.166	35.775	16.44%
시장요인	1.040	1.142	1.000	1.130	1.270	1.283	41.238	18.95%
투자인센티브	1.024	1.000	0.885	1.000	1.016	1.059	35.995	16.54%
산업연계성	1.091	1.017	0.787	0.984	1.000	1.173	36.249	16.66%
기업특성	0.902	0.857	0.780	0.945	0.852	1.000	32.053	14.73%
2단계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쌍대비교로 판단자료를 수집하고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 가중치 산출하여 하위 평가요인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도출						
생산요소 (비일관성지수: 0.002)	부동산 구득	노동비용	노동력	자금조달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부동산구득용이	1.000	0.746	0.642	0.886			13.178	19.8%
노동비용	1.340	1.000	0.883	1.238			17.966	27.0%
노동력	1.559	1.132	1.000	1.684			21.472	32.2%
자금조달용이	1.129	0.808	0.594	1.000			14.023	21.0%
산업인프라 (비일관성지수: 0.000)	사회기반 시설	공장기반 시설	연구기반 시설	기술사무 지원시설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사회기반시설	1.000	0.534	0.809	0.869			12.860	19.0%
공장기반시설	1.872	1.000	1.497	1.696			24.263	35.8%
연구기반시설	1.236	0.668	1.000	1.043			15.828	23.4%
기술·사무지원시설	1.151	0.590	0.958	1.000			14.753	21.8%
시장 (비일관성지수: 0.000)	시장규모	경쟁관계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시장규모	1.000	1.624					5.249	61.9%
경쟁관계	0.616	1.000					3.231	38.1%
투자인센티브 (비일관성지수: 0.002)	조세감면	임대료 분양가	재정지원 혜택	인허가 서비스	투자유치 태도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조세감면	1.000	1.390	1.292	1.657	1.624		35.115	26.9%
임대료·분양가 감면	0.719	1.000	0.839	0.992	1.236		24.075	18.4%
재정지원혜택	0.774	1.192	1.000	1.330	1.612		29.324	22.4%
인허가서비스	0.604	1.008	0.752	1.000	1.208		22.721	17.4%
투자유치태도	0.616	0.809	0.620	0.828	1.000		19.481	14.9%
산업연계성 (비일관성지수: 0.001)	집적경제 효과	원료·부품 접근성	모기업지역 연계성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집적경제효과	1.000	1.218	1.650				11.654	41.1%
원료·부품접근성	0.821	1.000	1.479				9.851	34.7%
모기업지역연계성	0.606	0.676	1.000				6.857	24.2%
기업특성 (비일관성지수: 0.000)	경쟁우위	경영전략	개인적 요인				열 합계	중요도 (Normalize)
경쟁우위	1.000	1.015	2.400				13.295	41.5%
경영전략요인	0.985	1.000	2.446				13.245	41.4%
개인적요인	0.417	0.409	1.000				5.477	17.1%
3단계	입지요인별 종합 중요도 및 우선순위 산출 : 상위 입지요인 중요도 * 하위 평가요인 중요도							

다른 하위요소에 비하여 우수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쌍대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작성하게 된다. 이 행렬로부터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이용하여 계층의 각 레벨마다 정규화한 하나의 우선순위 벡터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계층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내 주는 전체 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합 우선순위 벡터(priority vector)를 산출하게 된다(표 4).

3) 설문자료의 개요 및 검증

본 연구의 평가집단 구성은 설문조사를 활용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동남경제권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 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특성변수는 <표 5>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해 기업규모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100개사와 전문가집단 50명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표본의 선정은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현황자료와 대한상공회의소 기

표 5. 집단특성변수 구성

항목	특성변수	변수의 구성	분류근거
기업 규모	1.소기업 2.중기업 3.대기업	■소기업(50인 미만) ■중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기업(300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업종	1.경공업 2.중공업 3.첨단산업	■경공업(SIC 15, 17, 18, 19, 20) ■중공업(SIC 27, 28, 29, 34, 35) ■첨단산업(SIC 31, 32, 33)	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이병송·김석영(2005)
입지 유형	1.개별입지 2.산업단지 3.경제특구	■개별입지(자유형입지,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특구(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원석·송영필(1997) 윤상직(2009)

표 6.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설 문 내 용
조사대상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문가집단(학계, 연구기관, 투자유치공무원, 기업체부동산관리자, 기업부동산건설행사)
공간분포	■동남경제권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조사규모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체 100개사, 전문가집단 50명
조사방법	■기업체 대상 직접 방문조사 ■기업유형, 지역, 업종, 기업규모, 입지유형별로 층화 할당 ① 지식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명부 ②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지역별 기업체 명부 ③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최종검색
조사기간	2009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월 19일(2개월)
설문구성	■기업체 일반현황 (기업유형, 소재지, 업종, 종업원수, 투자방식, 투자동기, 글로벌성향, 경과연수, 투자동기) ■전문가집단(직무영역, 경력기간) ■입지요인 영향력 파악(하위요인, 5점 척도) ■입지요인 중요도 파악(AHP: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투자만족도 파악(14개 항목, 5점 척도), 경영애로사항(1순위, 2순위, 3순위) ■입지선정의 의사결정과정 및 자율성 수준(6개 항목)

표 7.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입지요인	생산요소	4	.686
	산업인프라	4	.704
	시장	2	.755
	투자인센티브	5	.893
	산업연계성	3	.738
	기업특성	3	.700
투자 만족도		14	.829

업체 명부에 기초하여 지역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할당된 다음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항목 중에서 입지요인과 투자만족도 항목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이 생산요소, 산업인프라, 시장, 투자인센티브, 산업연계성, 기업특성 등의 입지요인과 투자만족도 전체에서 신뢰도가 0.6이상으로 분석되어 측정변수의 신뢰수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과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설문자료의 일반 특성

본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60.9%), 울산광역시(21.7%), 부산광역시(17.4%)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기업규모에서는 중기업(50.0%), 소기업(31.5%), 대기업(18.5%) 순으로 나타났다. 입지유형으로는 국가산업단지(37.0%), 일반산업단지(19.6%), 자유무역지역(15.2%), 외국인투자지역(14.1%), 농공단지(4.3%)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분포에서는 조립금속과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각각 17.4%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15.2%), 수송기계(14.1%), 전자통신장비(12.0%) 순으로 나타나 동남경제권역을 대표하는 5대 산업분야인 화학,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동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시아의 생산거점 확보

표 8. 설문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
소재지	부산광역시	16	17.4
	울산광역시	20	21.7
	경상남도	56	60.9
기업 규모	소기업(50인 미만)	29	31.5
	중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	46	50.0
	대기업(300인 이상)	17	18.5
입지 유형	개별입지	9	9.8
	국가산업단지	34	37.0
	일반산업단지	18	19.6
	농공단지	4	4.3
	외국인투자지역	13	14.1
한국 투자 동기	자유무역지역	14	15.2
	한국 내 판매	25	27.2
	아시아의 생산거점 확보	28	30.4
	생산요소이용	15	16.3
	중국시장진출교두보	3	3.3
	본국으로 역수출	8	8.7
기타	13	14.1	

(30.4%), 한국 내 판매 목적(27.2%) 순으로 나타나 시장을 중시하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본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집단의 직무영역과 경력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표 9. 설문대상 전문가집단의 특성

구분		빈도	(%)
직무 영역	부동산관련 전공 또는 학회	8	16.3
	부동산연구기관	6	12.2
	부동산컨설팅회사	3	6.1
	기업부동산전문중개업소	2	4.1
	투자유치 및 인허가공무원	12	24.5
	기업체부동산 관리업무	4	8.2
	기타	14	28.6
경력	5년 미만	24	49.0
	5년 이상 10년 미만	16	32.7
	10년 이상	9	18.4
전체		49	100.0

유치 및 인허가 공무원(24.5%), 부동산관련 전공 또는 학회(16.3%), 부동산연구기관(12.2%), 기업체부동산관리자(8.2%)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직무경력은 5년 미만의 경력이 49.0%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2.7%, 10년 이상이 18.4%로 나타났다.

2) 입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종합결과

(1) 평가집단별(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전문가집단) 분석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입지요인과 하위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에서 두 평가집단 간에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투자인센티브와 기업특성에서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집단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정책적 변수인 투자인센티브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기업의 내

부적인 전략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특성에 대해서는 매우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기업내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중요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는 투자인센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5개의 요인 중에서 조세감면(4.4%)만이 10위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하위 평가요인들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전문가집단 간에 입지요인별 중요도 평가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일부 구성원은 각자의 전문영역이나 직무수행과 직결된 정책분야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해당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성향도 일정부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평가요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는 노동력(32.2%, 1위)을

표 10. 집단별 종합 중요도 및 순위

상위요인	하위요인	FDI기업		전문가집단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생산요소	부동산구득용이성	3.3%	16	4.3%	10
	노동비용	4.5%	9	5.2%	7
	노동력	5.4%	8	3.7%	15
	자금조달용이성	3.5%	15	3.8%	14
산업인프라	사회기반시설	3.1%	17	4.2%	11
	공장기반시설	5.9%	6	5.3%	6
	연구기반시설	3.8%	12	2.1%	20
	기술 및 사무지원시설	3.6%	14	2.3%	19
시장	시장규모	11.7%	1	11.4%	1
	경쟁관계	7.2%	2	4.1%	12
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	4.4%	10	6.6%	5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3.0%	18	8.6%	2
	재정지원혜택	3.7%	13	7.2%	3
	인허가 서비스	2.9%	19	3.4%	16
	투자유치태도	2.5%	20	2.7%	18
산업연계성	집적경제효과	6.8%	3	7.1%	4
	원료부품접근성	5.8%	7	5.0%	8
	모기업지역연계성	4.0%	11	2.8%	17
기업특성	경쟁우위	6.1%	4	4.8%	9
	경영전략	6.1%	5	4.0%	13
	개인적요인	2.5%	21	1.3%	21

중요시 하고 있지만, 전문가집단에서는 노동비용(30.7%, 1위)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성적 요소인 노동력보다는 계량화가 용이한 노동비용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의 한계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투자인센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평가요인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는 조세감면(26.9%, 1위)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전문가집단에서는 일반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30.2%, 1위)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지 이후의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인센티브보다는 투자당시에 확정되는 감면혜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기업의 투자동기와 사업전략 등과 같은 기업특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일반기업들보다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기밀보호 등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산업용부동산 전문가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들은 기업내부의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입지관련 전문가들의 내재적 한계로 보이며 전문가들의 내재적 한계가 커질수록 입지 이후의 투자만족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고 중국에는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기업특성별(기업규모, 업종, 입지유형)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

기업규모, 업종, 입지유형별로도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업규모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에서는 집적경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입지요인인 투자인센티브의 경우, 소기업(14.7%), 중기업(16.3%), 대기업(19.8%)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센티브의 지원조건인 투자환도금액과 신규 고용창출의 규모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각종 보조금이 달라지는 인센티브 자체의 지원구조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업특성요인의 중요도는 투자인센티브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화되지 못한 다양한 제품구성과 원청업체의 가변적인 사업전략에 따라 납품물량이나 제품전략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첨단산업에서는 여타 업종과는 달리 임대료 및 분양가감면, 재정지원, 고급기술인력, 산·학·연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첨단업종의 기업유치에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투자유인책으로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나 입지유형의 가중치보다 업종에 따른 요인별 가중치의 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기업규모나 입지유형보다는 업종의 차이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가 더욱 더 중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로,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계획입지에 비해 시장규모의 중요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수의 기업들이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이유는 시장의 판매요소와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특구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전략요소와 같은 기업특성변수들이 여타 입지유형보다는 더욱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항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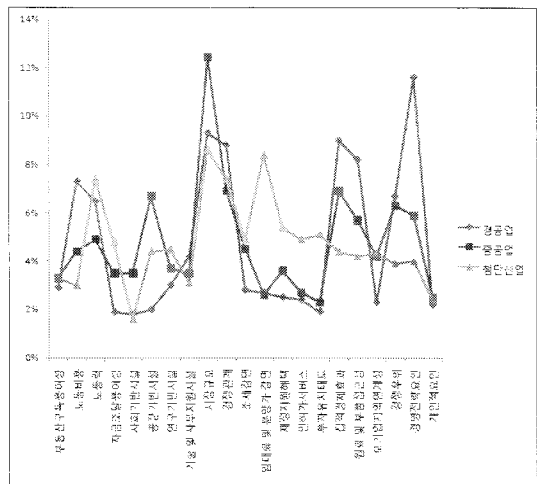


그림 1. 업종별 종합 평가결과 비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물류환경과 관세 등의 혜택이 우수한 경제특구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업특성(기업규모, 업종, 입지유형)에 따른 기업체 전체의 요인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특정 투자기업에서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후보입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점수와 결합하여 복수의 후보입지에 대한 종합점수를 산

출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투자지역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와 개별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해 온 입지의사결정의 한계와 투자위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표 11>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중요도의 상대

표 11. 기업규모별, 업종별, 입지유형별 중요도

상위 요인	하위 평가요인	기업규모별			업종별			입지유형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개별입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생산 요인	부동산구득용이성	2.9%	3.4%	3.5%	2.9%	3.3%	3.3%	1.5%	3.3%	4.1%
	노동비용	3.9%	5.1%	3.6%	7.3%	4.4%	3.0%	6.3%	3.9%	5.1%
	노동력	5.8%	4.5%	7.0%	6.5%	4.9%	7.4%	6.0%	4.2%	9.0%
	자금조달용이성	3.9%	3.2%	3.5%	1.9%	3.5%	4.8%	3.0%	3.3%	4.1%
산업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3.0%	2.7%	4.7%	1.8%	3.5%	1.6%	1.9%	4.0%	1.9%
	공장기반시설	7.3%	5.2%	5.9%	2.0%	6.7%	4.4%	5.3%	6.0%	5.6%
	연구기반시설	4.4%	3.3%	4.4%	3.0%	3.7%	4.5%	4.6%	3.8%	3.3%
	기술·사무시설	4.1%	3.2%	3.8%	4.2%	3.5%	3.1%	3.2%	3.7%	3.1%
시장 요인	시장규모	9.8%	14.8%	7.5%	9.3%	12.4%	8.6%	21.0%	11.2%	9.7%
	경쟁관계	7.5%	7.1%	6.6%	8.8%	6.9%	7.4%	4.7%	6.6%	9.7%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3.7%	4.3%	5.9%	2.8%	4.5%	4.9%	4.7%	4.5%	3.9%
	임대료분양가감면	3.5%	2.6%	3.5%	2.7%	2.6%	8.4%	1.5%	2.7%	4.9%
	재정지원혜택	3.3%	3.8%	4.0%	2.5%	3.6%	5.4%	2.4%	4.0%	3.5%
	인허가 서비스	2.4%	3.0%	3.3%	2.4%	2.7%	4.9%	2.0%	3.1%	2.6%
산업 연계성	투자유치태도	1.8%	2.6%	3.1%	1.9%	2.3%	5.1%	2.0%	2.6%	2.1%
	집적경제효과	7.0%	6.2%	8.1%	9.0%	6.9%	4.4%	8.5%	6.6%	6.4%
	원료부품접근성	6.3%	6.1%	4.1%	8.2%	5.7%	4.2%	8.4%	6.0%	4.2%
	모기업지역연계성	3.8%	3.9%	4.5%	2.3%	4.2%	4.3%	2.9%	4.8%	2.7%
기업 특성	경쟁우위	5.5%	6.8%	5.0%	6.7%	6.3%	3.9%	3.9%	6.9%	5.0%
	경영전략	7.7%	5.8%	4.6%	11.6%	5.9%	4.0%	4.8%	6.1%	6.3%
	개인적요인	2.5%	2.2%	3.4%	2.2%	2.5%	2.4%	1.4%	2.6%	2.8%

주: 바탕색은 기업규모별, 업종, 입지유형별로 각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표 12. 기업특성별 투자유치전략

특성결합	입지결정 주요영향요인
경공업 업종 소기업	기술 및 사무지원시설, 경쟁관계, 원료부품접근성, 경영전략
경공업 업종 중기업	노동비용, 경쟁우위요인
경공업 업종 대기업	집적경제효과
중공업 업종 소기업	공장기반시설
중공업 업종 중기업	시장규모
중공업 업종 대기업	부동산구득용이성, 사회기반시설, 개인적요인
첨단산업 소기업	자금조달용이성, 연구기반시설, 임대료 및 분양가감면
첨단산업 중기업	공통요인 없음
첨단산업 대기업	부동산구득용이성, 노동력, 연구기반시설, 조세감면 임대료 및 분양가감면, 재정 지원혜택, 인허가서비스 투자유치태도, 모기업지역연계성

주: 기업규모 상대중요도(H) & 업종 상대중요도(H)

적 우위요인을 이용하여 투자기업의 특성별로 선호하는 입지요인들과 결합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한다면 행정당국이나 투자유치기관의 마케팅 전략수립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투자만족도 및 입지의사결정과정 분석결과

전체 14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투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5점 만점에 2.87점, 전문가집단은 3.09점으로 조사되어 전문가집단의 예상보다는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투자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p < .05$).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정부·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2.47), 투자유치 및 고충처리조직(2.64), 조세감면(2.65) 순으로 불만족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의 편리성(3.24), 원부자재 및 부품공급업체 접근성(3.12), 주요고객 및 시장 접근성(3.11) 등으로 나타났다. 투자인센티브와 연관성이 높은 만족도 평가항목들은 평균이하로 나타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집단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족도 수준보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

업체들의 투자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은 투자유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기업체들의 불만족 원인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로,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만족도는 생산요소요인($r = .34, p < .01$), 산업인프라요인($r = .36, p < .01$), 시장요인($r = .37, p < .01$), 투자인센티브요인($r = .38, p < .01$), 산업연계성요인($r = .23, p < .05$), 기업특성요인($r = .24, p < .05$)의 전 항목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시에는 생산요소, 산업인프라, 시장, 투자인센티브, 산업연계성, 기업특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입지에 대한 투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로, 투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입지에 대한 투자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지요인을 선정하여 투자만족도와 AHP 결과로 도출된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비교해 보았다. 투자만족도와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결과로부터 나타난 시사점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에 대한 투자만족도를 제고하고

표 13.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요인과 만족요인 상관분석

항 목	생산요소	산업 인프라	시장	투자 인센티브	산업 연계성	기업특성
임대료 및 분양가 수준	.16	.03	.11	.12	.03	.08
우수한 노동력 확보	.30**	.18	.28**	.21*	.24*	.38**
항만·공항 등 교통 편리성	.16	.22*	-.04	.00	.06	.12
주요고객 및 시장 접근성	.14	.32**	.17	.08	.19	.16
원부자재 및 부품 접근성	.24*	.34**	.19	.08	.33**	.20
동종업체의 근접 및 집적	.30**	.25*	.36**	.24*	.36**	.14
산학연 기술교류	.20	.15	.15	.24*	.06	.19
기술 및 사무지원서비스	.30**	.23*	.32**	.34**	.16	.30**
조세감면수준	.18	.11	.29**	.32**	.06	.08
각종 보조금, 자금용자	.31**	.25*	.32**	.41**	.13	.09
공장인허가 등 행정서비스	.11	.21*	.20	.22*	.05	-.08
투자유치 및 고충처리조직	.05	.12	.20	.24*	.01	.01
정부의 지자체 지원수준	.18	.26*	.16	.35**	.07	.08
전반적인 입지만족도	.00	.11	.18	.11	.09	.09
투자만족도 전체	.34**	.36**	.37**	.38**	.23*	.24*

주: * $p < .05$, ** $p < .01$

표 14.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투자만족도와 입지중요도 비교

투자 만족도		입지 중요도	
만족요인	점수(순위)	입지요인	%(순위)
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의 편리성	3.24(1)	사회기반시설	3.1(10)
원부자재 및 부품공급업체 접근성	3.12(2)	원료부품접근성	5.8(3)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3.11(3)	경쟁관계	7.2(1)
임대료 및 분양가 수준	3.04(4)	부동산구득용이성	3.3(9)
유사 동종업체의 근접 및 집적	2.97(5)	집적경제효과	6.8(2)
우수한 노동력 확보	2.88(6)	노동력	5.4(4)
공장설립인가 등 행정서비스	2.87(7)	인허가서비스	2.9(11)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준	2.76(8)	투자유치태도	2.5(12)
기술 및 사무지원서비스	2.74(9)	기술 및 사무지원시설	3.6(8)
각종 보조금, 자금융자 등 재정지원	2.71(10)	재정지원혜택	3.7(7)
조세감면 수준	2.65(11)	조세감면	4.4(5)
투자유치 및 고충처리 전담조직	2.64(12)	투자유치태도	2.5(12)
정부·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	2.47(13)	연구기반시설	3.8(6)

경영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인센티브의 강화, 노동문제의 개선, 동종업종의 기술교류확대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입지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투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정책적 자원배분이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로, 경영애로사항으로 나타난 1순위, 2순위, 3순위 항목에 대해 각각 3점, 2점,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10개 항목³⁾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노동유연성부족(20.3%) 우수인력확보어려움(18.5%), 임금상승(15.0%), 물류비용과다(10.7%), 산업연계성부족(8.5%) 등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입지정보획득을 위해 기존의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34.8%), 내부조직의 자체평가자료(30.4%), 국내합작투자사·대리점·거래선(14.1%) 순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전문가집단에서는 기업체들이 입지정보획득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36.7%)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 < .01$). 이러한 결과는 장래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 역시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입지관련정보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고충사항들을 선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지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계층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기업 또는 본사의 최고경영자(57.6%)로 나타났고, 전문가집단 역시 모기업 또는 본사의 최고경영자(30.6%)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두 집단 간에는 응답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표 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향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경제권역에 속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조업에 적합한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여 집단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입지유형별로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인 모집단의 공간적 분포는 동남경제권역에 속하는 부산광

표 15.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전문가집단 종합비교

평가항목		순위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문가집단	결과	
A H P	상위요인	6	1위	시장(18.9%)	투자인센티브(28.6%)		
			2위	생산요소(16.7%)	생산요소(17.1%)		
			3위	산업연계성(16.7%)	시장(15.5%)		
			4위	투자인센티브(16.5%)	산업연계성(14.9%)		
			5위	산업인프라(16.4%)	산업인프라(13.9%)		
			6위	기업특성(14.7%)	기업특성(10.1%)		
	하위 요인	4	1위	노동력	노동비용		
			1위	공장기반시설	공장기반시설	일치	
			2위	1위	시장규모	시장규모	일치
			5위	1위	조세감면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3위	1위	집적경제효과	집적경제효과	일치
			3위	1위	경쟁우위	경쟁우위	일치
	최종결과	21	1위	시장규모	시장규모	일치	
			2위	경쟁관계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3위	집적경제효과	재정지원혜택		
4위			경쟁우위	집적경제효과			
5위			경영전략	조세감면			
만족도	14	1위	교통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	일치		
		2위	원료부품 공급업체 접근성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3위	임대료 및 분양가 수준	우수한 노동력 확보			
경영 애로 사항	10	1위	노동 유연성 부족	임금상승			
		2위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노동 유연성 부족			
		3위	임금상승	국내시장 개척 어려움			
의사 결정	6	1위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일치		
		5위	1위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7위	1위	모기업 본사 최고경영자	모기업 본사 최고경영자	일치	
		3위	1위	특정부지→투자지역	투자지역→특정부지		

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도 국한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규모, 업종, 입지유형, 기업연령, 투자방식, 투자동기, 글로벌성향, 의사결정 정보요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에 반영하였다. 연구모형의 기업규모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였고, 업종유형은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입지유형은 개별입지, 산업단지, 경제특구로 분류하여 각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조사표본의 수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100개사와 전문가집단 50명을 층화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판단하는 중요도 및 우선순위와 산업용부동산 전문가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입지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집단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은 기업체의 기대치와는 달리 투자인센티브요인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어 이러한 비대칭 정보들은 정책당국자들이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시장실패와 투자기업의 철수 또는 사업축소의 원인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선행의 입지결정요인 연구에서 거의 다

루어 지지 못한 기업특성변수들을 입지결정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경쟁우위요인과 경영전략요인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행정당국에서는 투자기업의 경쟁우위요소 및 경영전략 등 기업의 특성들을 지역별 입지평가에 반영하고 맞춤형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케팅 활동에 나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로, 기업규모나 입지유형보다는 업종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용성 측면에서 후보입지선정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기업규모나 입지유형보다는 업종별 특성들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업종별, 기업규모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향후 기업체에서 복수의 후보입지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기업의 투자만족도와 입지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생산요소, 산업인프라, 시장, 투자인센티브, 산업연계성, 기업특성요인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의 투자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로, 기업체에서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은 노동의 유연성 부족, 우수한 산업인력부족, 과도한 임금인상 등 주로 노동관련 문제가 중요한 고충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투자유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로, 입지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이미 국내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을 통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진출한 여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선행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신규 투자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상위조직이나 직급이 높을수록 입지결정의 자율성과 영향력은 더욱 더 높아지므로 의사결정단계에서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필요한 마케팅과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처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치활동의 역사가 짧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축적과 경험이 미진한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라 여겨진다. 향후 입지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입지관련 정보의 구축과 정보공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남경제권역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만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일반적인 지표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주

- 1) 계층구성을 위한 각 기준과 단계들은 의사결정의 종류에 따라 최종목표, 단계의 구분, 단계별 평가기준, 그리고 대안 등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
- 2) Cronbach's α 계수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한 조사 내에서 설문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0.6이상이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 연구에서는 동남경제권역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노동유연성부족, 동종업종 산업연계부족, 우수인력확보어려움, 물류비과다, 원자재조달애로, 국내시장개척곤란, 임금상승, 정보수집애로, 계획입지조성미비 등 10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문헌

- 김태은·구교준, 2007,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203-228.
- 박원석·송영필, 1997, 아파트형공장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도권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 서의호·변대호, 1998, 자동차공장입지선정을 위한 AHP 모델,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7, 15-30.
- 이번송·김석영, 2005, 지역적 특성이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계획, 40(6), 209-227.
- 임영대, 1998, 김해시 장유면의 공업입지와 지역적 연계, 한국지역지리, 4(1), 99-120.
- 윤상직, 2009, 외국인투자법제 해설, 세경사, 서울.
- 조택희, 2008, 제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지, 26(2), 77-105.

- 차미숙, 200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 실증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4(2), 119-152.
- Ali, S. and Guo, W., 2005, Determinants of FDI in China, *Journal of Global Business and Technology*, 1(2), 21-33.
- Armstrong, H. and Taylor, J., 2000, *Regional Economic and Policy*, Blackwell, Oxford.
- Badri, M.A., 2007, Dimensions of Industrial Location Factors: review and explor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ublic Affairs*, 1(2), 1-26.
- Brewer, T.L. and Young, S., 1998, *The multilateral investment system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Brooke, M.Z. and Buckley, P.J., 1988,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Macmillan, London.
- Buckley, P.J. and Casson, M., 1976, *The futur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Macmillan, London.
- Cheng, L.K. and Kwan, Y.K., 1999,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DI?: the Chinese exper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1, 379-400.
- Chung, W., 2001, Mode, size and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industry markup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45, 185-211.
- Coughlin, C. and Arromdee, V., 1991, State characteristics and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4), 675-683.
- Dunning, J.H., 1977,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 Ohlin et al.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Macmillan, London.
- Friedman, J., Gerlowski, D.A. and Silberman, J., 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location of foreign branch plants in the United States, *Global Finance Journal*, 7(2), 209-222.
- Katona, G. and Morgan, G., 1952, The Quantitative Study of Factors Determining Business Decis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6, 67-90.
- Lall, S., 1997,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new trends, sources and policies, Economic paper 31, Commonwealth Secretariat.
- Na, L. and Lightfoot, W.S., 2006,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t regional level in China,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in China*, 1(3), 261-278.
- Perlmutter, H.V., 1998,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10), 7-26.
- Porter, M.E., 1998,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 Smith, D.M., 1981, *Industrial location: an economic geographical analysis*, John Wiley & Sons, New York.
- Stafford, H.A., 1974, *The anatomy of the location decision: content analysis of case studies*, in Hamilton, F.E.I. (ed.), *Spatial perspectives 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John Wiley & Sons, New York.
- Sun, 200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ross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1, 79-113.
- Townroe, P., 1971,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Centre for Urban and regional Studies*, Occasional paper 15, University of Birmingham.
- Wei, S.J.,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1-11.
- Yang, C., Smith, C., Gatfield, T. and Harker, M., 2003,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key industries' location to Brisbane, Australia, Conference paper on Clusters, Industrial Districts and Firms: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1-30, Modena, Ital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교신 : 박원석,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전화: 053-850-
6381, 이메일: wspark@daegu.ac.kr

Correspondence : Wonseok Park, Departmen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 Jillyang, Gyeongsan, Gyeong-

buk 712-714, Tel: 053-850-6381, e-mail: wspark@
daegu.ac.kr

(접수: 2010.11.12, 수정: 2010.11.30, 채택: 2010.12.17)